

임실군 농업인월급제 '안착'

2년 동안 약 1500여농가 110여억원 지급... 침체된 농가 '활력'

임실군이 도내 최초로 시행한 농업인월급제가 농민들의 큰 호응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특히 임실군을 시작으로 한 농업인월급제가 도내 타지자체로 확산되면서 침체된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농업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2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한 이후 작년까 지 2년 동안 약 1500여농가에 110여억원의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들의 영농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농준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에 영농비를 월급처럼 미리 지원해주는 제도다.

임실군은 지난 2015년 민선6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에선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운영 중으로, 농번기에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 이자와 원금을 갚는 농가의 악순환을 끊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군은 올해도 농업인월급제를 적극 추진한다.

6월부터 읍·면 지역농협에서 자체 수매 약정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은 올해 실무협의회를 거쳐 조공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 4월에서 8월까지 5개월 동안 약정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월 300만원)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임실군이 전액 농협에 보증을 주고 있다.

군은 임실농협과 오수·관촌농협이 공동 설립한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과 자체수매 약정체결을 신청한 벼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진행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 3년째를 맞아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은 조공 및 지역농협, 행정과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쌀값 폭락 등 침체된 농가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군정 추진에 힘쓸 것”

박우정 고창군수, 3월 중 비전다짐의 날 행사서

박우정 고창군수가 “새로운 계절, 봄을 맞아 군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각종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고창군을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자”고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군정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중 비전다짐의 날’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구제역과 AI의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과 축산 농가, 관계기관들이 함께 밤낮을 잊고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AI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 더 이상의 발생이 없도록 더욱 철저한 방역활동을 펼쳐가자고

말했다.

박 군수는 “고창군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최선을 다하면서 태풍이나 폭우, 매년 반복되는 상습침수피해지역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방하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만들기,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고창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재외군민들이 잘 정돈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의 모습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달 초까지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추진하면서 많은 군민들을 만나고 다양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한 만큼 그에 대한 후속조치도 건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3년 연속 산불 발생 없는 지역을 위해 산불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불행라철이 되면 고창읍성, 선운산도립공원, 운곡습지 등 주요 관광명소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고, 오는 4월 22일부터 ‘청보리밭 축제’도 개최될 예정인 만큼 관내 모든 지역이 깔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도 빈틈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3월 청원조회 개최

임실군이 2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3월 청원조회’를 개최했다.

실과원소장, 읍·면장 및 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빙기 안전주요 및 봄철 산불예방, 사업 조기발주, 적기 영농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전달했으며 모범이장 및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6명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최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중심 안보정책자문관이 ‘한미동맹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김정수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다딤터 원장의 직장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이 진행돼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심민 군수는 훈시를 통해 “민생현

장방문,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활동 등 각종 군정업무에 성실히 수행한 공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해빙기를 맞아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적기영농으로 풍년농사를 위한 민간의 준비와 함께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남원 광한루원 월매집 '새 단장'

전시 조형물 내구, 실리온 재질 재료 채색작업 등 실시

남원시 대표 축제인 제87회 춘향제를 앞두고 광한루원 월매집 내 전시조형물과 시설물이 새 단장을 한다.

2004년에 설치된 월매집 내 전시조형물과 시설물이 낡고 퇴색하여 광한루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에 추진되었으며, 동시에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앞으로 2개월간 춘향전을 비롯한 역사사의 고증을 통하여 전시 구성 요소가 문학·시대적 배경에 부합하도록 전시소품 교체·보완, 시설물 보수 등에 사업비 62백만원을 투입하여 춘향전의 문학적 배경인 광한루원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춘향과 몽룡이 백년가약을 맺은 장소인 부용당은 춘향과 몽룡이 술자리를 갖는 장면, 월매가

생활하는 방은 몽룡이 춘향의 치마폭에 걸은 서약 집필 장면을 연출하여 춘향전 스토리의 정수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시 조형물을 내구·정밀성에 중점을 두어 주요 노출 부위는 실리온 재질의 재료에 사실적인 채색작업을 실시하고, 의상으로 가려진 부위는 FRP, 플라스틱 종류의 재료를 사용할 예정으로 전시인형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출되어 사람과 흡사하게 제작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물과 전시 소품에 관람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조명을 일반 조명이 아닌 스팟 조명으로 교체하고, 침하된 바닥과 벽면을 보수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게 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체험하는 다양한 힐링교육 운영

순창군이 만성질환 예방식단, 운동, 명상 등을 체험하는 다양한 힐링교육 운영을 통해 ‘힐링 최적지 순창’을 전국에 알리는데 본격 나섰다.

군은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를 중심으로 올해 숲과 명상을 함께하는 마음의원, 나에게 맞는 운동과 요가, 순창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제로 1박 2일, 2박 3일 등 다양한 체험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대표적 체험프로그램은 ‘영양과 운동의 Balance school’ 교육이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연구소에서 개발한 당뇨, 고혈압 예방 식단을 직접 실험해보고 탄력밴드를 활용한 기초 근력운동을 통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을 익힐 수 있다.

‘숙수 힐링스테이’ 교육은 2박3일 일정으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

행된다. 조용하고 한적한 숲에서 트레킹과 명상을 즐기고 순창에서 재배한 채소를 이용한 자연밥상을 실습한다.

각박한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가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진행해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1박2일 순창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은가죽 건강요리교실, 가족과 함께하는 농가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건강과 농촌체험이 관심 있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은 3월부터 시작하며 각 10회씩 총 30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재)건강장수연구소 전화 063-653-8708이나 (재)건강장수연구소 홈페이지(www.icsa.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수도시설 안전 점검 실시

임실군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를 공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안전한 수도를 생산과 신뢰받는 급수환경 조성을 위해 ‘수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정수처리시설 2개소, 배수지 13개소, 가압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종합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정수처리시설 공정별 시설물의 관리상태, 설비 및 배관 등 부식 여부, 화재대비 소방시설 작동상태, 자가용 전기설비 등을 점검했다.

또한 배수지 및 가압시설 등 외부에 노출된 시설물의 강풍 및 호우 배수 대책, 보안설비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지급

고창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2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 215건에 181만 9000원에 대해 1월 말까지 납세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감액 ▲국제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한다.

군은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와의 직접 통화, 환급대상자 계좌번호 조사, 읍면사무소 홍보 등을 펼친다고 3일 전했다.

한편, 환급 안내문을 받은 군민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군 재무과 세입징수팀으로 전화(063-560-2493)나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등으로 환급 신청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내고을 안전지킴이 활동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빈집털이 등 범죄예방을 위해 제10기 내 고을 안전지킴이 활동을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1개 읍·면에 74명으로 구성된 내 고을 안전지킴이는 범죄취약 및 우범지역 순찰, 등·하교 시 어린이 보호 등 학교 주변 범죄예방, 농번기 빈집털이 예방 등 민·경 협력을 통한 공동체 치안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순창경찰서 내고을 안전지킴이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 노인자치경찰대로 출범, 그동안 민·경 협력치안의 상징적 모델이 되는 등 순창경찰의 대표적인 특수시책 가운데 하나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